

佛 마크롱 “언제까지 美에 기대나... 홀로서기 절실”

獨 국민방문 연설... 유럽 공동방위체제 재구축 호소 “美·中 경쟁서 주권적 모습 보여야... 독자 규칙” 강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 을 국민 방문 중이다.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 24년 만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가 시화된 유럽의 총체적 위기 속에 유럽연합(EU) 쌍두마차의 협력이 한층 중요해 졌다. ‘유럽자강론(自強論)’ ‘안보·경제 홀 로서기’가 그의 이번 독일 방문을 관통한 메시지다.

마크롱은 27일(현지시간) 드레스덴 성모 교회 광장에서 “자기나라만 생각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며 유럽 공동방위체제 재구축을 호소했다. 이를 “유럽인으로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비금갈 일”이라고 표현한 게 주목된다. 유럽의 안보 홀로서기를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꾸는 대변혁에 비유한 것이다. 지난 약 80년 미국에 기대 안주했음을 말해준다. 이날 마크롱은 “우리가 스스로 국방·안 보 틀을 확립할 때 유럽의 진정한 통일 내 지 통합이 완성된다. 이게 향후 몇 년의 과

제”라며 “유럽현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에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럽의 주요 난제 중 하나” 로 꼽았으나 실은 “최대 난제”로 새겨들어 야 할 안국한 어법이다.

그가 “제국주의 욕망에 맞선 프랑스·독 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양국이 힘을 합 치면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가지전쟁·미국대선 등 지정학적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화답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럽으 로서 행운”이지만 “항상 이런 노력을 요구 하는 게 합리적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마크롱 발언이 특히 주목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종식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대목이다. 15세기 대항해시대 이래 세상을 주도하던 유럽이 20세기 두 차례 의 대전을 통해 자멸적 상황에 놓였으며 미국의 개입으로 겨우 수습됐다.



독일을 국민방문 중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드레스덴의 광장에서 1만5000명 청 중을 향해 연설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쌍두마차인 양국의 이번 만남을 “유럽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으로 짚으며 미국 의존 대신 유럽의 홀로서기가 절실했음을 강조했다. EPA-연합뉴스

이후 유럽은 미국 원조 아래 부흥했고 탈냉전 들어선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덕분에 번영했다.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자각이 마크롱의 발언에 녹아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서유럽의 탈냉전 황금기의 종언을 알린 사건이자 EU 자강론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마크롱은 러시아를 향해 “20세기 최약

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제국의 꿈을 실현 하기 위해 유럽의 미래를 가지고 노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 크라이나가 합의한 평화조약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게 바로 공동방위·안보를 구축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내달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해 “유

럽 전역의 권위주의 바람”을 몰아내자는 마크롱의 주장은 EU 주류와 거리를 둔 형 가리 등을 겨냥한 말이지만, 막거나 제재 할 방법이 없으니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유럽의 경제 홀로서기 또한 절실하다. 마 크롱은 “유럽이 미국·중국과 경쟁에서 주 권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며 “방위산업이든 다른 분야든 우리가 선 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럽식 규 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에서는 시대를 바꿀 만한 창의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 라는 지적도 일반적이다. ‘왓츠앱’ ‘페이스 북’ ‘아마존’ 등 유럽인들의 일상을 지배하 는 디지털 인프리카가 모두 미국 것이다. 최 근 출간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손진 석·홍준기 저)에 잘 소개됐듯 부유하던 유럽 국가들의 현재는 대체로 암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력 의 민낯도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다.

앞서 오전 마크롱은 슈타인마이어 대통 령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찾아 참배했다. 이튿날(28일) 윈스터에선 ‘베스

트팔렌 평화상’이 마크롱에게 수여된다. 유럽통합 기여자에게 주는 상이다. 30년 전쟁을 끝낸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이 근대 유럽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 것에서 유래한 상이기도 하다.

양국 장관들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 도 열린다.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 럽연합(EU) 재정위기, 중국의 덩핑수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마크롱과 솔츠 사이엔 유럽의 국방 대책을 두고 첨 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솔츠가 이웃 프랑 스를 놔두고 미국에서 핵심 무기를 조달 해 마크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핵보유 국 프랑스의 방위산업에 기반해 ‘유럽의 국방 자립’을 역설해 온 그를 무시한 처사 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비용은 하루 평균 1억3600만 달러(약 1860억 원)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대부분을 미국과 EU가 대신 메워 준다. 여 기에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최소 방위비 기준을 ‘국 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선언한 터라 서유럽 주요국들 시름은 깊어만 간다. 임영선 기자 hirms@skyedaily.com

머스크 ‘인공지능 xAI’ 대박... 8조 원 투자 유치

설립 10개월 만에 32조 원 기업가치 인정받아 오픈AI에 이은 ‘세계 2위 AI스타트업’ 등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인공 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잭팟을 터뜨 렸다. 단숨에 우리 돈 8조 원 조달에 성공 한 것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는 불과 1년 만에 32조 원으로 불어났고 전 세계 열 손가락 내 스타트업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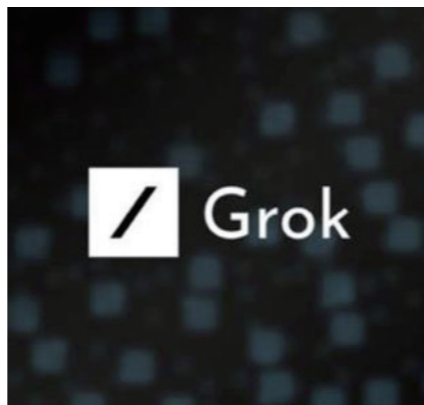
27일(현지시간) 자 웰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xAI가 60억 달러(약 8조 178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으며, xAI의 기업가치는 240억 달러(약 32조 7120억 원)까지 불어나 오픈AI(기업가치 800억 달러 이상)에 이은 ‘세계 2위 AI스 타트업’으로 뛰어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귀재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이끄는 킹덤홀딩부터 실리 콘벨리의 거대 벤처캐피탈 세쿼이아, 안드

레센 호로위츠까지 가세했다. 당초 머스 크 목표액의 두 배 넘게 밀려 들었다고 전 해진다. 업계에선 머스크가 xAI의 성공에 자기 휘하 모든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온 사실에 주목한다.

테슬라의 AI전문가들이 xAI로 재배치 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그록(Grok)을 훈련할 때 X(옛 트위터)의 방대한 데이터 를 활용 중인 것도 강점이다. 블룸버그통 신은 “xAI가 설립된 지 채 1년 안 돼 이뤄 진 두 번째 대규모 투자”라며 “AI개발에 대한 투자의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로 짚 었다.

xAI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AI챗봇 ‘그 록’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록이란 챗 GPT 류의 생성형AI로 ‘이해·공감하다’를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만든 챗봇 그록(Grok).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8조 원 조달에 성공했다.

뜻한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짝 재치를 발휘해 대담하도록 설계돼 ‘반항적인 성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xAI 홈페이지엔 “우머를 싫 어한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AI시 스템에서 거부되는 까다로운 질문에 답할 게요”라고 돼 있다.

xAI는 투자금을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에 투입해 그록-2 등 최신 AI를 선보일 계획이다. 관계자가 “향후 몇 달 가 파른 진보의 궤도를 이어가며 흥미로운 신기술과 제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더 욱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본격 AI시대 코앞에서 경쟁은 치열함을 더하며 관련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아마존 역시 엔스로 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MS의 선택을 받은 유럽판 오픈AI ‘미스트랄AI’도 6억 달러 수준의 자금조달에 나서 기업가치가 반년도 안 돼 3배로 뛰었으며, 엔비디아픽 으로 잘 알려진 코어위브 또한 단숨에 10 조 원을 끌어들었다. 바야흐로 생성형AI 춘추전국시대로 주도권을 둘러싼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임영선 기자 hsrims@skyedaily.com

이란 고농축 우라늄 증가... 긴장 고조

라이시死後 핵 협의도 중단 2월 비축량보다 20.6kg 늘어

이란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을 더욱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라 힘 라이시 대통령 사망 이후 핵사찰 실 무협회가 중단된 상황이기에 서방·중 동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AF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를 인용해 최대 60%까 지 농축한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 량이 11일 기준 142.1kg이라고 보도했다. IAEA가 2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축 량보다 20.6kg 증가한 수치다.

60%농축 우라늄은 추가 농축 과정 을 거쳐 2주 내 핵폭탄 제조용으로 사 용 가능하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 르면 이란은 202.8kg의 저농축(3.67%) 우 라늄만 보유할 수 있다. 핵개발 중단 대

가로 40여 년간 이어진 경제제재 해제로 가는 듯했으나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 프 미 대통령이 ‘독소 조항’을 문제삼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제재 가 복원됐다.

이란 핵능력의 ‘10~15년간 제한’ 대신 ‘영구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었다. 이후 이란은 우라 늬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 도 늘려왔다. 이러한 고농축 우라늄 생 산은 핵무기 제조 시도로 간주된다. 나 야가 이란의 미신고 시설에서 비밀 핵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방국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 다. 핵합의를 되살리려면 이란 내 핵시 설에 대한 IAEA의 투명한 사찰이 보장 돼야 하는데 이란은 IAEA의 검증 요구 에 시큰둥하다.

임영선 기자 hsrims@skyedaily.com

수출기업의 더 큰 성장에 Ksure가 함께합니다

격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활동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